

# 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생활 변화

## [e-서울통계 89호]

정보공개정책과(행정국)

-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족은 그 형태와 구조 및 가치의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음. 이에 가족 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서울 가족의 변화와 연속성을 파악하여 현대 서울시민의 삶을 이해하고자 함.
- 이에 ‘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생활 변화’에서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가족형성 및 해체와 관련된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, 가족환경 변화, 가족구조 변화 및 전망 등을 통계로 작성하였으며,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.
- 주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(2008~2014년) 및 장래가구추계(2012~2013년) 등임.

## 목 차

<b>[요 약]</b> .....	1
<b>1. 가족가치관 변화</b> .....	2
(결혼 및 이혼 견해, 노부모 부양, 가사분담 견해 및 실태, 가족관계 만족도)	
<b>2. 가족환경 변화</b> .....	5
(만혼화 및 혼인감소, 출산 감소, 황혼이혼 증가, 홀몸 어르신)	
<b>3. 가족구조 변화 및 향후 전망</b> .....	7
(혼인상태별, 세대구성별, 가구원 규모별 가구형태)	

##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

### ○ 2014 사회조사(통계청)

- 작성목적 : 사회적 관심사항,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
- 작성방법 : 전국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,000명(서울시민은 약4천4백여명)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.
- 조사대상 기간(시점) : 2014. 5. 15. ~ 5. 30.(16일)/ 조사주기 : 1년(매년)

### ○ 인구동향조사-혼인 및 이혼통계(통계청)

- 조사목적 :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요인인 혼인 및 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
- 기초자료 : '통계법'과 '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2013.1.1.~2013.12.31.일까지 전국의 읍·면사무소 및 시·구청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의 신고내용
- 작성근거 : 통계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10103호, 인구동향조사)
- 작성시점 : 매년 12월 31일 기준

### ○ 2010 인구주택총조사-가구부문(통계청)

- 조사목적 : 인구규모,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,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,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(Sampling Frame)의 기초 자료로 활용
  - 조사연혁 : 인구총조사는 1925년,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
  - 조사기간 : 2010. 10. 22. ~11. 15. (25일간), 조사기준 시점 : 2010. 11. 1. 0시 현재
  - 조사대상 :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·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
- ※ 본문 2000년, 2005년,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, 일반가구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.

### ○ 2010~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(통계청)

- 작성목적 : 가구의 양적·질적 변화정보는 각종 경제·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하는데 유용, 최근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 추계가 필요
  - 활용자료 : ① 기준가구 작성, 장래가구추출 및 가구구성비 추정 : 1990~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
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: 2011 장래인구추계(2010~2060)  
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: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(1990~2010)
  - 작성대상기간/시점 : 2010~2035년(25년간 : 매년 7월1일 기준)
- ※ 본문의 2014년<sup>e</sup>, 2030년<sup>e</sup> 가구통계는 장래가구추계 결과 활용, e는 추정치임.

### ○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

-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,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- 조사자료는 조사대상,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.

## I . 요약

- (가족가치관 변화) 결혼과 이혼 문제는 개인 선택이라는 경향 높아짐
  - ▶ 결혼의 의미 변화, 결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약화되는 반면 개인 선택문제라는 경향이 점차 강해짐  
15세이상 서울시민 결혼은 ‘해야 한다’는 2008년 68.0%→2014년 55.6%로 감소,  
‘해도 좋고,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문제’ 28.2%→41.0%로 증가
  - ▶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, 인해야 한다는 부정적 견해에서 개인 선택문제이고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.  
15세이상 서울시민 이혼은 ‘해서는 안된다’는 2008년 57.3%→2014년 41.8%로 감소,  
‘할 수도 있고,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문제’ 33.2%→42.8%로 증가  
‘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’ 6.9%→12.4%로 증가
  - ▶ 노부모 부양가치관 변화,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스스로 해결 및 사회부양 의식으로 변화  
15세이상 부모 노후생계 책임 2006년 자녀 60.7% > 자녀 및 정부·사회 29.1% > 스스로 해결 7.7%  
2014년 자녀 및 정부·사회 48.2% > 자녀 31.2% > 스스로 해결 16.4%
  - ▶ 가사분담 견해 및 실태 변화, 공평한 가사 분담은 태도 변화만큼 현실화 되지 않고 견해와 실태 간 상당한 괴리  
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 2008년 25.9% → 2014년 40.6%로 증가  
실제 가사를 공평 분담한다는 실태 2008년 15.8% → 2014년 19.7%로 소폭 증가 수준
  - ▶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, 2014년 15세이상 57.0%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만족, 불만족 4.2%  
가족관계별 만족률 자녀 72.1% > 배우자 67.7% > 부모 64.3% > 형제자매 52.3% 등의 순
- (가족환경 변화) 만혼화, 혼인 감소, 출산 감소, 이혼 증가, 홀몸 어르신 증가 등
  - ▶ 2013년 혼인은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, 출생아는 1981년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
  - ▶ 2013년 평균초혼연령 남 32.6세, 여 30.4세, 총 혼인 6만9천건으로 지난 20년 새 33.5%(3만5천건) 감소
  - ▶ 2013년 평균출산연령 32.5세, 총 출생아 수 8만4천명으로 지난 20년 새 52.2%(9만2천명) 감소
  - ▶ 황혼 이혼 증가 추세로 이혼 부부 중 동거기간 20년이상 이혼이 1993년 8.6%→2013년 31.8%로 증가
  - ▶ 65세이상 홀로사는 인구 2007년 15만8천명 → 2013년 25만3천명으로 증가, 65세이상 5명 중 1명 꼴
- (가족구조 변화 및 향후 전망 2000년 → 2014년<sup>e</sup> → 2030년<sup>a</sup>) 가족구조 대변화 전망
  - ▶ 혼인상태별 가구 중 미혼 및 이혼 가구 증가하고 유배우 가구는 감소 전망  
미혼 14.2%→21.2%→23.8%, 이혼 4.6%→8.8%→14.1%, 유배우 72.9%→61.0%→53.8%
  - ▶ 세대구성별 대표적인 가구형태인 부부+미혼자녀 가족 감소, 1인·부부·한부모 가구 증가 전망  
부부+미혼자녀 49.8%→34.3%→25.4% 감소, 1인·부부·한부모 34.4%→50.2%→59.2% 증가
  - ▶ 가구원 규모별 가구형태는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 전망  
4인 가구 32.1%→20.2%→12.7% 감소, 1인·2인 가구 33.3%→50.8%→61.1% 증가

# 1. 가족가치관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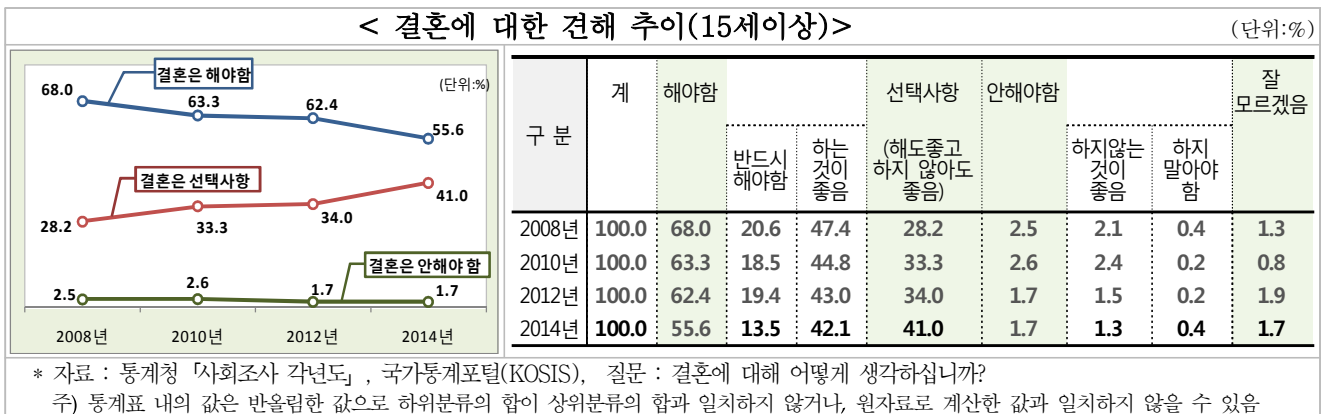
## 1-1. 결혼의 의미 변화

결혼 해야한다는 당위성 약화되는 반면, 개인 선택 문제라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

- ▶ 해야한다 2008년 68.0% → 2014년 55.6%
- ▶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선택문제 2008년 28.2% → 2014년 41.0%

□ 가족환경 변화의 핵심은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의미가 '해야 한다'는 당위적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, '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'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.

-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결혼을 해야한다(반드시 해야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)는 견해는 2008년 68.0%에서 2014년 55.6%로 감소했으며, 이 중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.6%에서 13.5%로 감소하였음.
- 반면, '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'는 개인 선택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28.2%에서 2014년 41.0%로 12.8%p 증가함.



## 1-2.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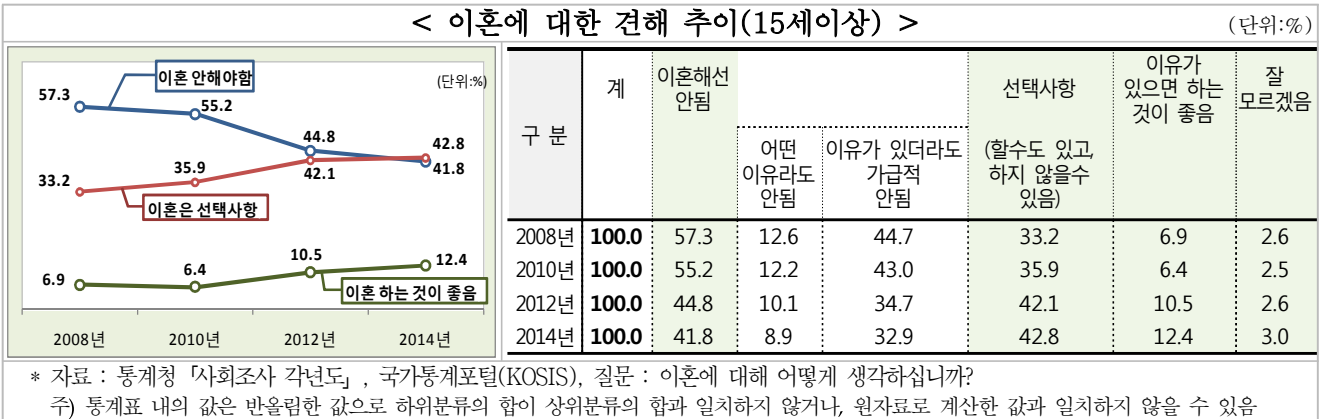
이혼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 태도에서 개인 선택문제이고, 허용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

- ▶ 해서는 안된다 2008년 57.3% → 2014년 41.8%
- ▶ 할수도 있고, 안할수 있는 선택문제 2008년 33.2% → 2014년 42.8%
- ▶ 이유가 있으면 이혼 하는 것이 좋다 2008년 6.9% → 2014년 12.4%

□ 만혼화 경향은 가족형성의 지연을 의미하는 반면, 이혼은 형성된 가족의 해체와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인 태도에서 개인 선택문제이거나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.

- 이혼에 대해 '해서는 안된다(어떤 이유라도 안됨+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 안됨)'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57.3%에서 2014년 41.8%로 감소한 반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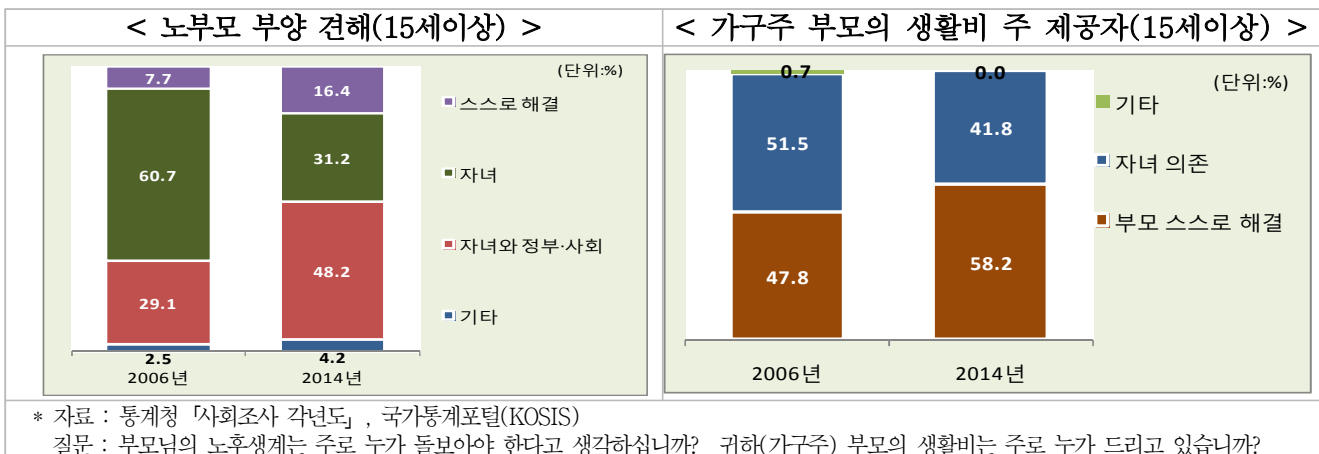
- 이혼은 할수도 있고,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라는 응답은 2008년 33.2%에서 2014년 42.8%로 증가하여 2014년 처음으로 이혼 안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보다 선택사항이라는 의견이 높았음.
- 또한, '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'라는 인식은 2008년 6.9%에서 2014년 12.4%로 증가함.



### 1-3. 노부모 부양 가치관 변화

**2014년 노부모 부양 견해 : 자녀와 정부·사회(48.2%)>자녀(31.2%)>부모 스스로 해결(16.4%) 순  
 가구주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실태는 2014년 자녀(41.8%)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(58.2%)이 더 높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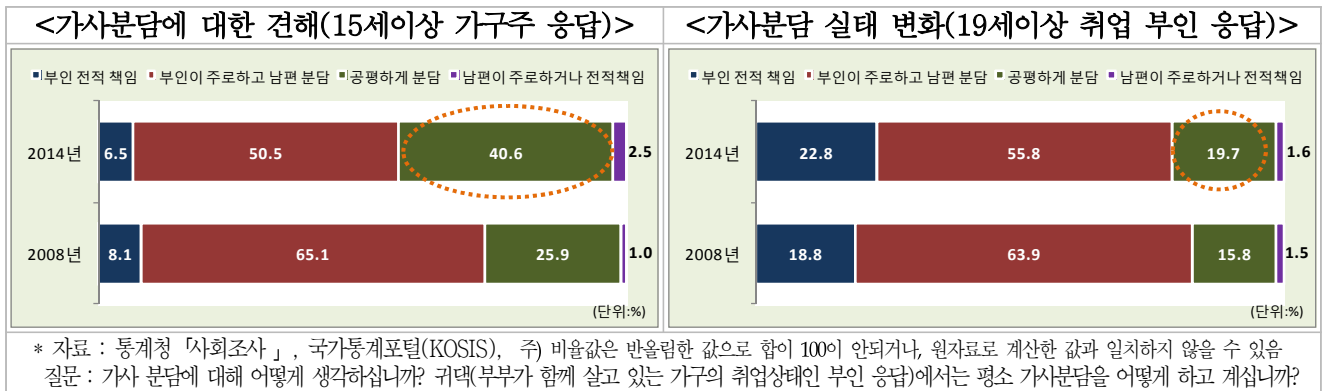
-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던 과거 부양가치관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, 사회부양의식과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.
-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6년 60.7%에서 2014년 31.2%로 감소한 반면, 자녀와 정부·사회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29.1%→48.2%로 크게 증가했으며,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7.7%→16.4%로 증가하고 있어 부모 부양 가치관은 자녀부양 의식에서 사회부양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음.
- 또한, 현재 가구주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는 자녀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이 더 많았음.



### 1-4. 가사분담 견해 및 실태 변화

가사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25.9% → 2014년 40.6%로 꾸준히 증가  
 가사 공평분담 실태는 2008년 15.8%에서 2014년 19.7%로 소폭 증가

- 부부간 가사 분담 현황을 보면, 남성의 가사 참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나, 공평한 가사 분담은 태도(견해) 변화만큼 현실화 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.
- 가사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8년 25.9%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40.6%에 달했으나, 실제로 가사를 부부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08년 15.8%에서 2014년 19.7%로 소폭 증가하고 있어 가사 공평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가 있음.
- 또한 서울 가정에서는 여전히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를 책임지는 비율이 공평 분담율보다 높음.



### 1-5.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

2014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 57.0%, 보통 38.7%, 불만족 4.2%  
 가족관계별 만족률 자녀 72.1%>배우자 67.7%>부모 64.3%>형제자매 52.3% 등의 순

- 15세이상 인구 중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2006년 49.2%에서 2010년 56.6%로 증가했으나, 2012년 53.7%로 감소하다 2014년 57.0%로 다시 증가함.
- 가족관계별로 보면, 2014년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72.1%로 가장 높고, 다음이 배우자 67.7%, 자기 부모 64.3%, 형제자매 52.3%, 배우자 부모 50.3%, 배우자 형제자매 40.3% 순으로 나타났으며, 2012년과 비교하여 모든 가족관계에서 만족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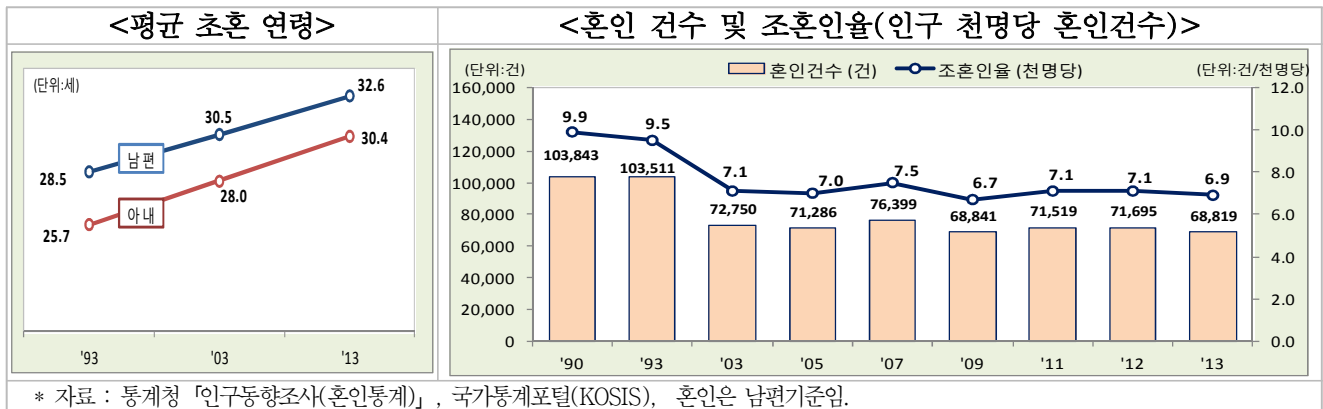


## 2. 가족환경 변화

### 2-1. 만혼화 경향 및 혼인감소

평균초혼연령 남 1993년 28.5세→2013년 32.6세, 여 1993년 25.7세→2013년 30.4세  
 2013년 혼인 6만9천건으로 20년 새 33.5%(3만5천건) 감소했으며, 1990년 이후 가장 작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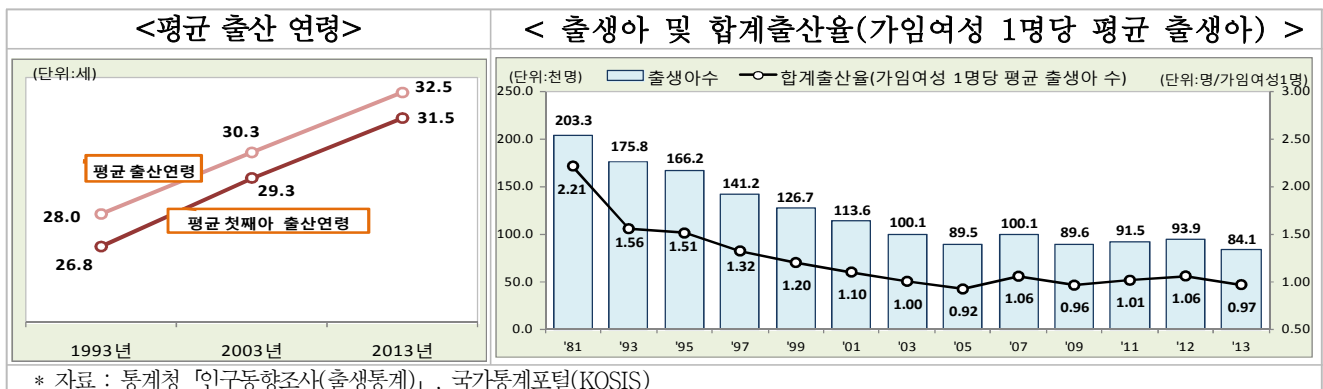
- 개인주의적 결혼으로의 의미 변화는 만혼화 및 혼인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.
- 서울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 20년 새 남성 4.1세, 여성 4.7세 각각 늦어졌으며,
- 최근 20년 간 연간 혼인 변화 추이를 보면 1993년 10만4천건에서 2013년 6만9천건으로 20년 새 33.5%(3만5천건) 감소했으며, 1990년 이후 가장 작았음.



### 2-2. 출산 감소

2013년 여성 평균출산연령 32.5세, 첫째아 평균출산연령도 31.5세로 2006년부터 30세 넘어  
 2013년 총 출생아수는 8만4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(‘81년 20만3천명) 최저 수준

- 만혼 및 미혼 증가(혼인 감소) 등으로 출산연령이 늦어지고, 출생아 수 감소함.
- 결혼 지연으로 여성의 평균출산연령은 1993년 28.0세에서 2013년 32.5세로 높아졌으며, 특히 첫째아 출산연령도 1993년 26.8세에서 2013년 31.5세로 높아졌음.
- 2013년 서울 출생아 수는 8만4천명으로 1993년 17만6천명에서 52.2%(9만2천명) 감소 하였으며, 2013년 출생아 수는 통계작성(‘81년 20만3천명)이래 최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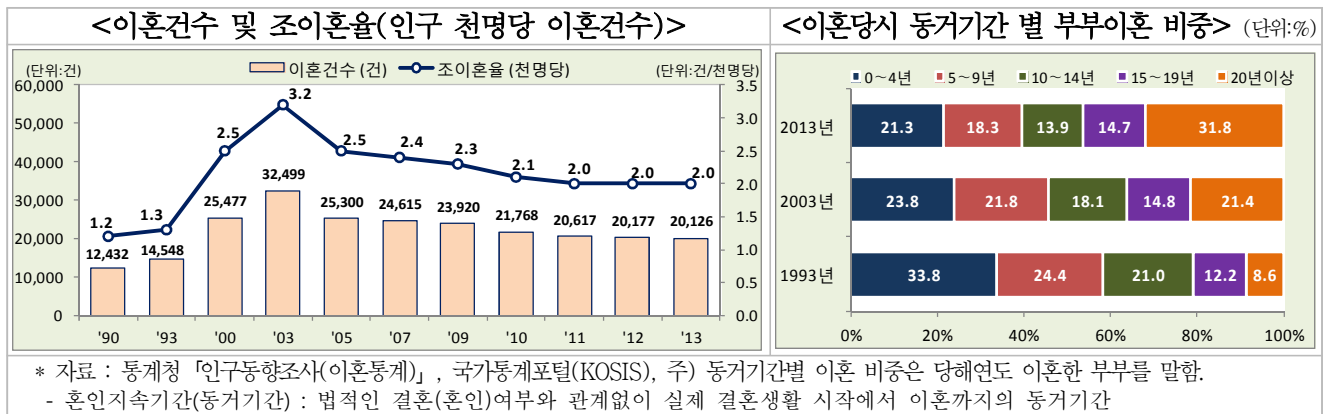


### 2-3. 황혼이혼 증가

이혼 1993년 1만5천건에서 2003년 3만2천건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부터 년 2만건 수준 유지  
 신혼이혼동거기간 4년이하 줄고, 황혼이혼동거기간 20년 이상 증가

▶ 이혼 당시 동거기간 4년이하 부부이혼 1993년 33.8%→2013년 21.3%, 20년 이상 8.6%→31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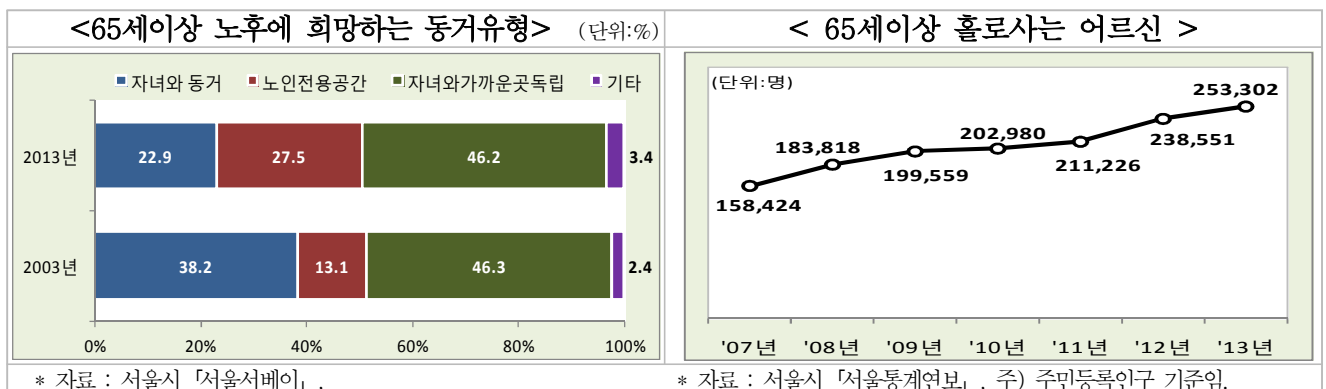
- 지난 20년 이혼 건수 추이를 보면, 1993년 1만5천건에서 2003년 3만2천건으로 가장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1년부터 연간 2만 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특히, 최근들어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혼 당시 결혼 후 4년 이하 부부 비중이 1993년 33.8%에서 2013년 21.3%로 줄고, 20년 이상은 8.6%→31.8%로 증가함.



### 2-4. 홀몸 어른신

2013년 65세이상 희망하는 동거유형으로는 자녀와 가까운곳 독립>노인전용공간>자녀와 동거 순  
 65세이상 홀로 사는 인구 2007년 15만8천명에서 2013년 25만3천명으로 증가

- 노부모 부양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희망하는 거주유형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변화되고 있으며, 홀로사는 노인이 점차 증가함.
- 2013년 65세이상 희망 동거형태로는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따로 살고싶다(46.2%)를 가장 선호했으며, 노인전용공간, 자녀와 함께 순.
- 65세이상 홀몸 어른신이 2007년 15만8천명에서 2013년 25만3천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, 이는 2013년 전체 65세이상(116만7천명) 중 21.7%에 해당함.





### 3. 가족구조 변화 및 향후 전망

#### 3-1. 혼인상태별 가구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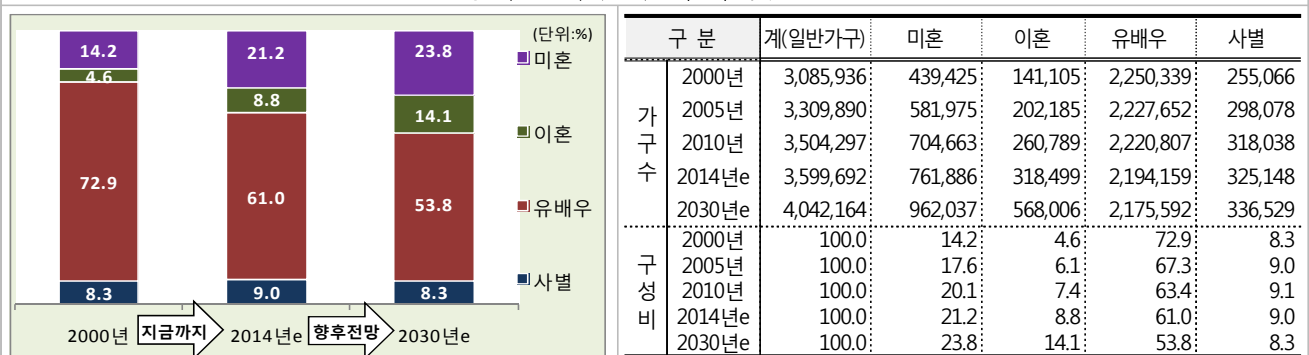
2014년 혼인상태별 가구형태 중 미혼 및 이혼 가구는 증가, 유배우 가구는 감소

- ▶ 미혼 가구 2000년 14.2%→2014년 21.2%로 증가, 향후 2030년<sup>e</sup> 23.8%로 증가 전망
- ▶ 이혼가구는 2000년 4.6%→2014년 8.8%로 증가, 향후 2030년<sup>e</sup> 14.1%로 증가 전망
- ▶ 유배우 가구는 2000년 72.9%→2014년 61.0%로 감소, 향후 2030년<sup>e</sup> 53.8%로 감소 전망

- 미혼 및 이혼인구 증가로 서울 전체 가구 중 미혼 및 이혼 가구는 증가하고,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감소.
- 2014년 혼인상태별 가구분포를 보면, 유배우 가구 61.0%, 미혼 가구 21.2%, 사별 가구 9.0%, 이혼 가구 8.8% 순으로 분포됨.
- 전체 가구 중 유배우 가구 비중은 2000년 72.9%에서 2014년 61.0%로 감소한 반면, 미혼 가구 비중은 14.2%→21.2%로 증가, 이혼 가구는 4.6%→8.8%로 증가하였으며, 향후에도 유배우 가구는 감소, 미혼 및 이혼 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.

< 혼인상태별 가구 수 추이 및 전망 >

(단위:가구, %)



\* 자료 : 통계청 「인구주택총조사(2010년), 장래가구추계(2014년e, 2030년e)」, 국가통계포털(KOSIS), e는 추정치를 말함.  
 - 2000년 혼인상태 미상 1가구. 가구 :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,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주민등록상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.  
 주)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,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#### 3-2. 세대구성별 가구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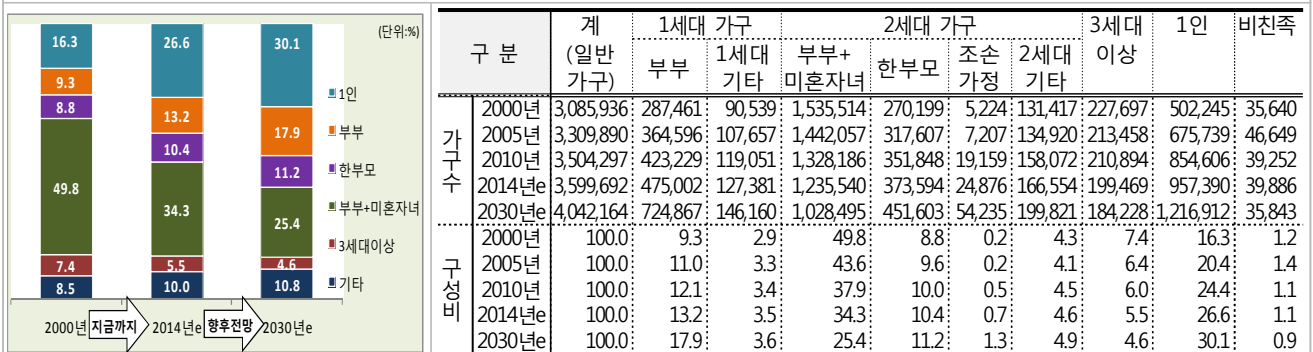
세대구성별 가구형태 중 대표가구인 부부+미혼자녀 가족은 감소하는 반면, 1인부부한부모 증가

- ▶ 부부+미혼자녀가구 2000년 49.8%→2014년 34.3% 감소, 2030년<sup>e</sup> 25.4%로 감소 전망
- ▶ 1인부부한부모 가구 2000년 34.4%→2014년 50.2% 증가, 2030년<sup>e</sup> 59.2%로 증가 전망

- 만혼화, 혼인 기피, 이혼 증가 및 저출산,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로 가장 대표적인 가족형태인 부부+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줄고, 1인·부부·한부모가구,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등 소핵가족 형태로 가족규모가 점차 작고 다양해짐.
- 2014년 세대구성별 가구형태는 부부+미혼자녀 가구 34.3%, 1인가구 26.6%, 부부 가구 13.2%, 한부모 가구 10.4%, 3세대이상 가구 5.5% 등으로 분포됨.

- 2000년만 해도 전체 일반가구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형태인 부부+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000년 49.8%에서 2014년 34.3%로 감소하는 반면, 1인 가구는 16.3%→26.6%, 부부 가구는 9.3%→13.2%, 한부모 가구는 8.8%→10.4%로 각각 증가하였음.

< 세대구성별 가구형태에 따른 가구 수 추이 및 전망 > (단위:가구, %)



\* 자료 : 통계청 「인구주택총조사(2010년), 장래가구추계(2014년e, 2030년e)」, 국가통계포털(KOSIS), e는 추정치를 말함.  
 주)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,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### 3-3. 가구원 규모별 가구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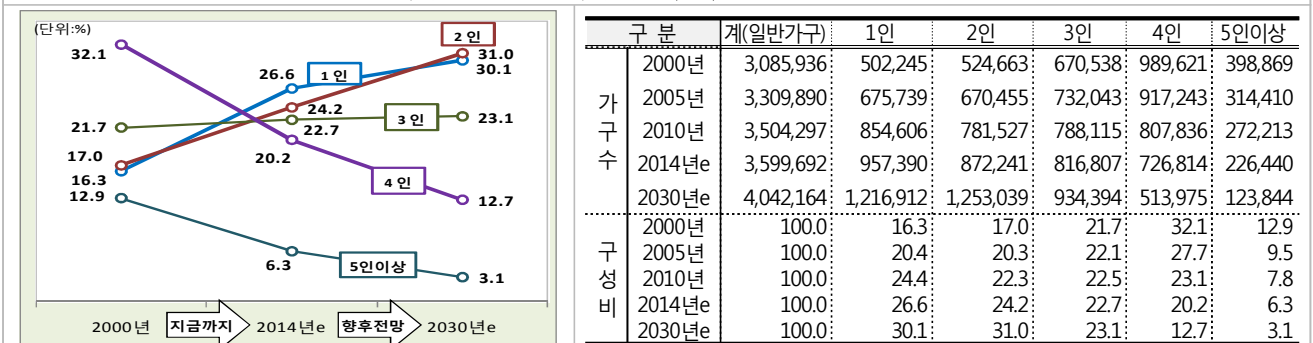
가구원 규모별 가구형태는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

- ▶ 4인 가구 2000년 32.1%→2014년 20.2% 감소, 2030년e 12.7%로 감소 전망
- ▶ 1인 및 2인 가구 2000년 33.3%→2014년 50.8% 증가, 2030년e 61.1%로 증가 전망

□ 이처럼 가족규모가 작아지고, 가구분화가 계속되면서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 서울 가족 규모가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.

-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보면, 2000년만 해도 4인가구가 32.1%로 가장 많았으며, 2인 가구 17.0%, 1인 가구 16.3%를 차지하고 있었으나, 2014년에는 1인가구가 26.6%로 가장 많고, 2인 가구 24.2%, 4인가구는 20.2%의 비율을 보임.
- 가구원 수별 가구구조는 2000년 '4인>3인>2인>1인>5인 이상'에서 2014년 '1인>2인>3인>4인>5인 이상'으로 변화하였음.
- 또한 2030년e에는 1인과 2인가구는 더 증가하고, 4인 이상 가구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.

< 가구원 수별 가구수 추이 및 전망 > (단위:가구, %)



\* 자료 : 통계청 「인구주택총조사(2010년), 장래가구추계(2014년e, 2030년e)」, 국가통계포털(KOSIS), e는 추정치를 말함.  
 주)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,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